

### 6년 간 전국 사찰 돌며 관정사업 보시

#### '보현회'와 김태룡 회장 등 선행



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 상 관정 개발이 쉽지 않아 1년 6개월에 걸쳐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무사히 마치고 불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보현회에서 의외로 식수가 부족한 사찰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보현회가 관정 개발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범화사와 강원도 낙산사, 충남 아산의 육련사 등 6년 동안 33개 사찰과 수녀원 1곳에 등 모두 37곳이다.

오랜 세월 관정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잊지 못할 사연들도 많았다. 전북 장수군 영월암은 6년 여의 개발 기간 중 가

박기범 기자

## 경전에 많이 나온 식물 콩·장미·벼순

#### 사찰생태연구 10개월 조사 '한글대장경' 속 식물 정리 불교식물원 조성 등 활용

경전에 기록된 식물 목록이 확인돼 불교 식물·생태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조재희)는 1월 30일 안국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목록 기초 조사 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소는 지난 해 4월부터 10개월에 걸쳐 동국대경원의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기본 자료

로 목록을 추출했다. 또한 한국배알리성전협회와 조가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빨리여경전>을 추가로 조사했다.

식물 이름이 확실하거나 식물로 추정되는 이름만을 추출했으며 경전 속 식물 이름과 한자이름 또는 중국명, 영어명이 확인되거나 일반이름과 학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조사 결과 사료로 사용한 한글대장경과 빨리여 경전에 수록이 검색된 식물은 1만 5000여 회수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는 9684회로 나타났다. 대

표 식물명으로 정리하면 312분류군으로 정리되며 103과(科) 237속(屬) 296종(種) 16변종으로 분석됐다.

콩과(科) 식물은 26분류군이 발견돼 경전 속에서 가장 많이 출현했으며 장미과(20 분류군)와 벼과(20분류군) 등도 다수 출현했다.

이 중에서는 한반도에서도 자생하는 식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나리의 경우 한글대장경 169권 <소요당집>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나라로 불교경전이 전래된 이후 추가로 기록된 식물이다.

부타의 행적과 관계가 깊은 3대 성수는 콩과의 교목인 무우수, 보리수, 사라수로 확인됐다. 부타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아기

를 낳기 위해 천정으로 가던 중 나무 아래서 산통을 느끼고 부타를 낳았다. 탄생수인 이 나무는 콩과의 교목인 무수(無憂樹)이다. 범어로 Asoka로 쓰기 때문에 아소카 나무라 하기도 한다. 부다가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다가 정각에 이르렀는데 이 나무는 뽕나무와 나무이며 불교 경전에서는 주로 보리수(菩提樹) 또는 도수(道樹)로 쓴다. 송제도에 힘쓰다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든 열반수는 사라수(娑羅樹)이다.

불교를 대표하는 꽃인 연꽃에 대한 확인 결과 범어를 기준으로 5가지로 구분됐다. Padma 혹은 Lotus로 불리는 연꽃인 Nelumbo nucifera Gaertn.을 의미하고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수련속 Nymphaea에 해당하는 백련 Nymphaea alba L.(우발화, White Water Lily), 청련 Nymphaea caerulea Savigny(Blue Water Lily), 홍련 Nymphaea pubescens Wild.(구물다화, Red Water Lily) 및 소련제 가화 Nymphaea rubra Roxb. ex Salisb. (White or Blue Water Lily)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명 확인 결과 홍련 Nymphaea pubescens Wild.과 소련제가화 Nymphaea rubra Roxb. ex Salisb.는 같은 꽃의 이름으로 확인돼 경전 속 식물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향후 연꽃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재희 소장은 “한국불교 최초로 국제적·학술적으로 통용되는 학명에 의해 불교 경전 속 식물을 목록화 한 것은 큰 성과다. 숲의 종교의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불교수목원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 도입할 대상 식물종을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음식·동물 방송 생명경시 '빨간불'

#### 보리, 4개월 간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방송모니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리가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에 대한 보고서를 1월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9-12월 4개월 동안 방영된 KBS '한국인의 밥상', MBC '공감 특별한 세상', SBS 'TV 동물농장' 등 방송 3사의 음식 및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리는 “음식은 곧 생명임에도 TV 교양프로그램들이 동식물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고, 회 뜨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리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음식소재도 생명체라는 인식 부족 ▷건강을 위협하는 육식 편중 식단 ▷외식 문화 조장으로 식생활비 상승 ▷방상문화 실종 등이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인의 밥상'은 10월 13일 방송된 '무안 갯벌 낙지' 편에서 산 낙지를 끓이는 국물에 산채로 넣었다. 11월 10일 '추사도 조기' 편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의 회 뜨는 모습을 방송했다.

'6시 내고향'은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음식폭자를 방영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체를 살상하거나 먹거리로만 취

급하는 모습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 287회나 지적됐다. 특히 리포터가 양미리를 산채로 불에 구우면서 “어서 먹어달라고 저렇게 꼬리를 치켜든다”는 등의 멘트가 방송되기도 했다.

이들 프로그램 중 외식과 가정식을 구분할 수 있는 5개의 프로그램에서 외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생활비(53.6%)의 비중이 교육비(4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TV 프로그램들이 앞장서서 외식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리가 11-12월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25쪽 중 38쪽이 외식을 소개하거나 가정식과 외식을 함께 소개했다. 가정식만 소개한 경우는 19쪽에 그쳤다.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들은 음식을 소개하면서 어른보다 젊은 리포터가 먼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입에 가득 물고 대화를 하는 등 전통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보리는 “음식 소개에 급급해 밥상 문화는 상실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릇이 넘치도록 푸짐한 양을 강조하고 있다. 또 환경기 시대에 비닐장갑을 끼고 조리하는 장면도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신년 맞아 잇따른 온정의 손길

새해에도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사진 왼쪽 두번째)은 2월 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 국제선센터 건립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사진 왼쪽 두번째)은 2월 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 국제선센터 건립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선원은 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여성광장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외 앞서 1월 30일에는 화계사(주지 수암) 신도회기 학생 장학금으로 1700만원을 희사했고, 같은 날 대전비구나청림회(회장 성현)는 태국 홍수재난 구호기금으로 400여 만 원을 전달했다. 또 1월 31일에는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면목여머니산악회(회장 서명래)가 5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의 환우 선정

#### 여상현 군(외상성뇌손상, 사지마비)

2010년 4월, 경기도 화성의 농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다. 큰 화물트럭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논으로 향하던 여상현(18) 군을 들이받은 것. 여 군은 그 때 뇌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험거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상현 군은 경기도 화성시 태권도 대표로 나갈 정도로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학생이었다.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가 많았던 여 군은 장애아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다녔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여상현 군의 아버지는 화성의 <한마음회> 봉사활동 회원으로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지난 2000년에 농사일을 하다 한쪽 손에 부상을 입어 현재 장애 3급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온 아버지는 아들이 아픈 후로 기운이 나지 않는다.

아들의 오랜 입원으로 부모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상황이다.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월 120여 만 원이 드는데 오랜 입원과 앞으로의 긴 재활기간을 생각하면 버겁지만 한다.

여상현 군의 부모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고, 상현 군을 위



해 민영보험 하나 들어 놓은 것이 없다. 얼마 전 농사짓던 땅도 처분했다.

상현 군은 현재 사지근력 강화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여상현 군이 하루빨리 일어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 10·27법난 기념자료집 발간

10·27법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등을 모은 법난기념자료집 <아! 어찌 경천동지할 일이...>가 1월 27일 발간됐다.

조계종이 펴낸 기념자료집에는 조계종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과 함께, 법난 피해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 피해자 스님들의 고문과 가혹행위 증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보고서 등이 수록됐다.

조계종은 기념자료집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전원,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학도서관(201곳), 국공립도서관(452곳), 전국주요사찰(640곳) 등에 무료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바라춤 - 오잡바라, 관옥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쇄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